

“열차 하루 46차례 도심 통과 용납 못해” 순천시민들 분노

시민단체, 국토부 경전선 전철화사업 설명회서 지중화 요구

광주-순천 경전선의 전철화 사업을 추진 중인 국토부에 대한 순천시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남 순천 시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경전선 전철화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열어 경전선 전철화 사업 내용 및 향후 추진 절차 등 정부의 계획과 일정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설명회에서 국토부의 정책 변화 없이 일관적인 답변이 나오자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은 지중화 요구 및 외곽 철도노선 이전 요구를 담은 시민 의견서를 제출한 뒤 행사장을 퇴장했다.

순천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설명회 시작 1시간 전부터 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 앞 광장에 모여 반대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도심 통과 철도 노선의 지중화 공사를 하거나 시 외곽으로 철도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허석 순천시장은 지난달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정부안대로 진행된다면 순천시 도심을 하루 46차례 열차가 지나게 된

다”면서 “순천시가 추구해온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는 크게 훼손될 뿐만 아니라 교통체증으로 출·퇴근 시간 도심은 교통지옥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시장은 대안으로 철도 노선을 시 외곽으로 변경하거나 기존의 경전선을 지중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앞서 소병철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도 정부의 경전선 전철화 사업 추진과정에서 순천시의 견수령 절차가 누락됐다고 국토교통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소 의원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지난 80여 년간 단 한 번도 개량하지 않았던 광주-순천 구간을 전철화해 광주에서 부산 간 이동 시간을 2시간대로 단축하고 영호남 간 교류 활성화 및 동반 성장을 꾀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데도 시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전선 순천도심구간 지상통과반대 순천시민대책위원회는 경전선 철길 지중화 및 시 외곽 이전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경전선 철길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겠다고 선언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지난 16일 국토교통부의 경전선 전철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열린 순천시 문화건강센터에서 순천시민들이 철길 지중화 및 시외곽 이전을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순천시 제공>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 찾습니다

두 간호사 봉사정신 계승 발전
고흥군, 대상 제정...4월까지 공모

고흥군은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추선을 계기로 ‘마리안느-마가렛 봉사대상’을 제정하고 오는 4월30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공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두 간호사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국가나 지역 사회에 헌신·봉사한 자로, 간호부문과 봉사부문 각각 1명이며 시상금은 부문별 1000만원이다.

추천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장, 자치단체 교육감, 중앙이나 시도 및 시·군·구 단위 각급

사회단체장,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20인 이상 연서로 할 수 있다.

또 추천된 후보자는 5월중 선양사업추진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결정된다.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는 고흥군 소속 도에서 43년 이상 간호봉사를 하면서 영아원 운영, 한센인 정착지원, 소록도 병원 내 결핵병동 건축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한센인의 희망이 되어 왔다.

이러한 삶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을 구성원으로 하는 노벨상 추천위원회가 2017년 구성됐으며 위원회는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두 간호사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구례군 ‘2020 섬진강 수해 백서’ 펴낸다

발생·복구 과정 담아 하반기 발간

구례군이 지난해 여름 참혹했던 섬진강 수해의 발생부터 피해, 복구과정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구례군은 지난 16일 상황실에서 ‘2020 구례지역 섬진강 수해 백서’ 발간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순호 군수와 군 간부공무원이 참석해 부서별 세부 추진계획을 공유하면서 지난해 8월 전 국민의 이목을 끌었던 섬진강 수해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과 피해 내용이 나열됐으며, 전 국민이 지원하고 힘을 모은 복구과정과 기록물 등을 취합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자료 분석과 실질적인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지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모든 과정을 백서에 담기로 했다.

특히 백서에는 당시 구호 및 복구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해준 사람들의 활동기록에 비중을 두기로 했다. 유관기관과 민간단체들의 개별 활동, 자원봉사자와 수재의연품 기부 내역 등을 세세히 기록할 방침이다. 구례군 총무과는 당시의 헌신적인 인

물, 수재민의 아픔,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연 등 다양한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백서는 6월 말까지 편찬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중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다.

김 군수는 “사상 유례가 없었던 수해를 겪었지만, 극복과정에서 전 국민들이 보내주신 뜨거운 성원 덕분에 아픔을 빠르게 치유할 수 있었다”며 “재난의 경험을 디딤돌로 삼아 구례가 도움을 잊지 않고 더 안전하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추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부동산 투기 잡아라”...여수시·경찰·세무서 업무협약

실무협 구성...“계좌 추적 등 협조”

여수시와 세무서, 경찰이 부동산 투기 근절에 나섰다.

여수시는 지난 15일 권오봉 시장과 문병훈 여수경찰서장, 김상구 여수세무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부동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긴밀한 조사 체계를 구축하고 여수지역 부동산시장 정보와 거래 동향을 공유하기로 했다. 부동산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 지원체제도 구축할 계획이다.

협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세금 탈루 의심자에 대해 계좌 추적 조사도 할 계획이다.

여수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여수시지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중개사 14명을 여수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 요원으로 위촉했다.

모니터링 요원은 부동산 거래현황을 분석하고, 가격이 급등하거나 외지인이 대량으로 매수하는 이상 징후 등 특이사항을 감시하고, 정례회의를 열어 정보를 공유한다.

여수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여수시는 최근 전매 제한이 풀린 옹진지구 분양 아파트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다윤계약이 의심되는 조합아파트도 조사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광양에 농산물품질관리원 문 연다

23년만에 분소 다음달 5일 개소

다음달 5일 광양에 농산물품질관리원 분소가 설치된다. 광양시는 지난 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광양분소 설치에 대해 정현복 광양시장과 김보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순천·광양사무소장이 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998년 국립농산물품질조사 전남지소 광양출장소가 순천으로 합병돼 폐지된 지 23년 만에 부활한다. 광양분소가 설치되면 광양시 농민들은 순천까지 가야하

는 불편이 해소된다.

고령의 농민들은 농업경영체 업무를 보기 위해 순천 외곽에 위치한 농관원 순천·광양사무소까지 버스를 여러번 갈아타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인해 광양사무소 부활을 염원했다.

농관원 광양분소는 다음달 5일 광양시 제2청사(농업기술센터)에 문을 열 예정이다. 직원 3명이 상주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민원상담·접수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